第七千八百三十三號 (1945・12・27 第三種郵便物認可) (1946・6・18 許可番號第二五二號) (日曜日) 조선일보 THE CHOSUN ILBO. 檀紀四千二百八十一年十一月二十一日 (日刊)

# 朝鮮日報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東文 編輯局長 洪[illegible]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電話本局 ②三三二八 ②三三八五 ②三三二四 ②三三八八
月定購讀料 貳百圓

## 美軍駐屯案可決
## 議長討議餘裕를不許

國會

美軍駐屯에 關한 決議案을上程討議케된 國會 第百九次本會議는 二十日 午前十時 申議長 司會로開議하야 提案者 崔允東議員(外務國防委員長)의趣旨說明과 李範奭國防長官으로부터의 美軍駐屯의必要性에關한 演說이있었고 李文源 鄭濟議員으로부터의 猛烈한反追論으로緊張裏에討議가 展開되었는데 同案은結局 討論을終結하고 原案대로通過시키기로 表決하자는 金俊淵議員의動議가採擇되어在席百十三人中八十八對三(反對議員은鄭濟、吳基烈、趙鍾勝)의過半數로通過되었다 討議經過는 먼저同案에對한意見陳述로서 李文源 鄭濟兩議員으로부터 方今大韓民國의獨立을UN에要請하는此際에 美軍을駐屯해달라는同決議案이 UN總會에 如何한反影을가져올것이라는것과 三千萬國民의 誤解를사지않는다든方法을가질수는 없었든가라는質問이 있은데對하여 崔允東議員은 그答辯을國防長官에게 미루어 廻避하였다 때마침 이問題에對한見解를自進披瀝코저 參席한 李國防長官은、美軍의撤退는 蘇聯의野欲을爲하여有利할뿐아니라第三次大戰이爆發하면戰略上美軍이不利하며 韓國이美蘇角逐戰의激戰場化할憂慮가있으므로 絶對不適當하다는要旨의要請이 있었다 이에이어 趙憲泳議員은 UN에서韓國問題가 完全히決議되기까지는 이러한決議文의內容은 그方法에있어서우리에게 不利한것이니 決議文 內容을 修正하야 「美駐屯軍의 撤退는大韓民國의 獨立에關한 UN決議를 完遂한後에 實行할責任이 있다고認定함」으로하자는 意見이 있었는데 金俊淵議員은 이로討論終結을하고 原案通過를 票決에 부치자는 動議를 하야 票決케 되자 黃潤鎬 李文源 盧鎰煥 趙玉鉉四議員은 좀더討議할時間의餘裕를달라고議長에게 要請하였음에도不拘하고議長이 許諾치않았음으로退場하고말았다 그러나 議長은 原案表決을 斷行하야 八十八對三으로 이를通過시키였는데 通過된決議案과 贊同議員은 다음과같다 그런데 이날同案이可決된것은 反派議員이戰術上大部分參席하지않은데 原因이있다고할것이다

### 決議文

現下 國內情勢에鑑하여大韓民國의 防衛治勢가整頓될때까지 美駐屯軍의南韓駐屯의必要를認定함
右決議함
檀紀四二八一年十一月十九日
提案者 崔允東 贊成者 郭尙勳 尹炳求 [illegible]
吳宅烈 李鍾淳 元容均 金振九 李源弘 元容㻐 陳[illegible]植 金俊淵 徐二煥 金敎賢 金 [illegible] 金庚培 李浩錫 趙在勉 鄭光好 [illegible]

## 美駐屯要請은 民意背馳
### 退席한十三議員聲明

美軍駐屯에關한 決議案이 廿日國會第百九次本會議에上程討議되자 앞서兩軍撤退를 主張하든 盧鎰煥 金基詰議員等十六氏는 議場으로부터 退場한後 그中十三議員은 駐屯要請決議는 民意에背馳된다하야 다음과같은 聲明을發表하였다

外軍駐屯을 自進要請한다는 自主國家와 文化民族은 東西古今에없다 그런데光輝있는 歷史의繼承者로서 新出發한 大韓民國의 國會에서國是를 冒瀆하고 民意에 背馳된 意思表示가强行된다는것은 神人이痛哭할일이다 美軍撤退는 南韓의眞空狀態를招來한다는 主張을하는一部가있으나 이는國軍將兵의 無勇과 國立警察의 無能을 自認한뿐아니라 外軍에 依存된眞空狀態의 無期限延長을 自願하는것인同時에 유엔決定에依한條件付撤退의原則과精神에도 違反되는것이다 現實的難境의 打開策으로 政府로서는 或時 이같은 權道를取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렇으로 行政府自身이 國家責任下에서 推進하는 措置에 對하야 立法府로서 그施策을 全的으로 否認치않는다하드래도 그에對한 嚴格한批判은 있어야할것이며 따라서그 得失에對한 保障도받어야할것이니 이것이 곧人民主權을代行하는國會의 當然한責務다 그럼에도不拘하고 오히려 國會自身이 이같은 [illegible]한措置를 敢行하려하니 이어찌 國基의大本을세우는 道理겠는가? 이에所信을 같이하는議員同志一同은 五千年歷史의權威와 三千萬民族의 矜持에비추어 子孫萬代에미치는 罪過를犯할수 없으므로 斷然히 退席하는바이다

金基詰、朴己云、金東準、林炳奎、李文源、黃潤鎬、趙玉鉉、盧鎰煥、朴允源、白亨南、金 周、申庚澈、裵重赫

## 社說
## 유・엔과韓國問題 (一)

유・엔은 確實히 苦悶하고있다。그機構와 運營全般에關해서는 美・蘇두陣營의對立、確執에서、昨年總會以來 事實上 分裂의傾向을 띄어고있는 그것이요 政策의 表現에서 가장 具體的으로 暗礁的難問題에부닥친것은、西의 伯林問題와 東의 韓國問題이라할것이다。兩問題는 歐洲와 極東의 두地帶를 둘러싸고、戰爭이냐、平和냐의 世界의運命을 결고 平和的解決을 爲하여 모든知能과忍耐가 可能한데까지 最善的努力을 다할것이 方今 開催된 유・엔總會의 各國平和使節의 崇高한 使命이요 또 最大의 苦悶의 課題인것을 알수있는것이다。伯林問題가 解決의端緖를 찾을듯 찾을듯하면서 焦燥한가운데時日을 끌고 있는동안 今般會期中의 그와 흡사 重大案件인韓國問題가 마찬가지 上程케된다고 할때 우리는 期待와 不安이同時에 우리의가슴을 설레이게하는것이다。

二

그런데 유・엔이韓國問題를 總會에 上程식힌本旨는 무엇이었드냐。우리는 問題를 大局的으로 살피고 또 解決의方向이 全般的이어야할것에 觀點을 두어야하겠기때문에 유・엔이韓國問題를取扱하였든 그本來의 趣旨에돌아가서 생각해야할것을 이저서않될것이다。위에서도말한바 있거니와 韓國問題는우리自身만의問題가 아니고 實로世界의問題의 하나인點에서 또 유・엔의諸國代表가 解決을 圖謀하려는 態度가 그러할것이기때문이다。昨年유・엔總會의決議案이 비록 美國案을主體로하고 討論된結果인것만은 事實이나、決議案의 贊成이單純히 美國에 偏黨한다는것이 아니고 實로蘇聯까지도 包含시켜서韓國問題의 國際的、平和的解決을爲한다는態度이었다。蘇聯이 棄權한것은 하는수없는바이었으나決議의精神은 그러했든것이다。또지금 韓國問題의 總會上程이라고하면 곳大韓民國을總會意思로 承認하는 어떤形式의國際承認만인듯이 생각키도 쉬우나 前會期의 決議와 그執行의節次로 본다면 于先臨時委員團의報告를 土臺로하고 南北을一括한韓國問題의 全體를討論의對象으로하여 蘇聯도이에合席하고 方途가 考慮되여야 할것과 同時에前期總會決議에適한 可能한 地域內의選擧에서 成立發展된오늘의 大韓民國의 問題가 討論되어야할것이다。

三

이미 承認이라는 問題만을 생각한다면 大韓民國이 昨年總會決議에 依하여 委員團의 監視下에 選擧가 있었고 政府成立의 經過에까지 이른以上 그間의經過에對한 委員團의報告가 委員團의動向에 비추어서나、또小總會와의連絡經過로 보아서나、大韓民國成立의 法的節次를 밟을것으로 認定할것으로 問題는 없으므로 昨年總會時에 決議案에 贊意를 表했든諸會員國이 어떤形式으로이에承認意思를表明케하느냐、하는것뿐일것이다。유・엔憲章으로써 會員國으로써 加入식힌다면、蘇聯의拒否權은 어떠케處理할것이냐、하는 機構上運營의問題가 있을것이고 그러치 않다면、總會의意思로써 意思表示의 方法은道理없을것도아니다。그러나 國家承認의 問題만은、이미事實上承認을한것이 한다면、大韓民國에對하야 美、中、比等이있고、蘇聯을中心한東歐의 그衛星國은 北韓政權에對하야承認을하였다고하므로 承認을얻을것만으로 解決을爲主한다면、結局南北의어느便에서 더承認國의數를 많이얻느냐 하는것이되고 말것이냐、그는、昨年總會의 決議案投票대로四十三對六으로 落着될것이早晩間의 事實이될수있으리라고생각할수있다。그러나 그보다도유・엔이韓國에 두國家를만들것을 前提로 하지 않었든것은勿論 우리는 더구나 國家承認이란統一國家로서 名譽뿐아니라그實質을 가주어야 할것에 意義를 가지는것이다。유・엔의韓國問題에對한 苦悶도 또한여기에 있을것이다。諸外國의好意와努力에 深甚한 敬意를表하며 더욱協助의精神을 다해주기를 바라는바이다。

## 國府軍北進中
### 徐州戰을白崇禧指揮

【南京廿日發로이타合同】西北基地로부터 華中地方을 向하여 새로운南下攻擊을 準備하고있는 劉伯誠將軍麾下의 中共軍部隊의 後方連絡을遮斷하려고 國府軍의強力한二部隊가 北方을向하여急進을決行하고있다 黃將軍麾下의部隊도 安徽省西北基地阜陽에서 롱海線에따라北進하고있다하는데 華中地方總司令官 白崇禧將軍이直接 이軍隊를 指揮하고있다한다 江蘇省政府는徐州近方의 戰鬪에서 國府軍은 相當히 進出하였다고發表하였는데 그곳에서온報道는 黃王로將軍麾下의國府軍이 大運河東方廿哩에있는롱海線의 一驛新安鎭을 奪還하였다고 關하야前記 發表를 確認하였다 黃將軍麾下의 一部隊는 또 今朝運河를건너部隊으로進擊하고있으며 同部隊는山東省境界의 台兒莊郊外에 이르고있다한다 또한報道에依하면 이方面에있든陳毅將軍麾下의 中共軍主力部隊는 台兒莊으로부터東東莊으로向하야 退却中이라하며 이作戰에는空軍이 協力하고있다

## 中國援助要求
### 마長官等案트氏接受

【파리廿日發INS合同】에依하면「트루만」美大統領은 美國의 西歐防衛策을 緩和해서라도 中國을 援助하라는要求를 接受하였다고하는데 이要求는「마ー샬」國務長官 其他美國高級官吏와「베빈」英外相의 綜合意見이라고한다 그리고이要求는 세가지 條目으로 構成된것이며 十六日「플로리다」에서의「트루만」大統領과「포레스탈」國防長官과의 會談時에 檢討된것이라한다

## 張特使의 中間報告
## 蘇、平壤代表招請要求
### 美、韓委報告依據主張

公報處廿日發表에 依하면UN派遣韓國首席代表張勉氏는 지난十一月十八日「무초」特使를 通하야 李大統領에게 다음과같은「멧세ー지」를 傳達하여왔다 한다

十一月十日第一委員會夜間會議에서 「체코」代表國은總會에서 韓國問題를討議하게될時에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代表團을招請하라는 動議를 提唱하였으나中國은 休會를 動議하여可決되었읍니다 蘇聯陣營의 支持를받고있는「체코」는十一月十五日下午「파레스타인」問題가上程되였을때도 同一한動議를 하였읍니다 蘇聯代表는(一)平壤代表團이巴里에到着하는데는 七日間이걸릴것이고 서울로부터의代表團과같이 事前에巴里로오는것을 許可하지않은것은 不公平한措置이며 (二)平壤代表團만이 오즉 韓國人民을 代表할수있다고主張하였읍니다 中國의 支持를받고있는 美國代表團「덜레스」氏는(一)議事手續上議事日程에 없는것이니 않되며(二)招請提議는全韓國問題의基礎事案件이 아니며 (三)總會는 韓國人民의 代表를 決定키爲하여 委員團을派遣하였었을뿐아니라 UN臨時韓國委員團의 報告의 決定을듣기前에 討議를 促하고 알기도못하는韓國人을招請하는것은 不適當하고(四)如斯한代表들은 始終一貫UN을 非難攻擊하였음은 周知의事實이라는理由下에 蘇聯의主張을 反對하였읍니다 그리하여「체코」의動議는 卅八對六(六票棄權)으로否決되었읍니다 「파레스타인」問題討議는 繼續中인데 「체코」의 動議는 以後에提出될것으로 豫期됩니다 本人은 今日UN事務總長에게 韓國政府를代身하여 UN憲章及 主義에至幅的支持를아끼지않는다는 書翰을 提出할려고합니다 이書翰은 第一委員會討議에關與하는機會를 얻는데有力할것입니다

## UN總會

## 蘇의軍縮案否決
### 美蘇代表間激論展開

【파리廿日發AFP合同】「유엔」總會는 十九日下午 軍縮問題에關한 最後의 演說을聽取하여 結局一般軍縮의 減縮에關한「베르린」決議案(多數派案)을 承認하였다 下午會議劈頭에「폴랜드」代表「카조수치」氏는 原子武器의 使用禁止와 五大國軍備의 三分之一 縮少에關한同國決議案을 再次提出하였는데 이決議案은政治委員會에서 壓倒的多數에依하여 排擊되였던것이다「유고스라비아」代表「오브라도비치」氏는 蘇聯提案을全文支持하여 同案은「全世界人民의 要望과一致된다」고 말하였다 그다음同會議는「麻藥」에關한 協約書 調印式에參席할수있도록 休會하여 代表들이「世界市民」에 [illegible] 下午五時會議는 再開되어 「우크라이나」「체코스로바키아」白露代表들은 모다「戰爭排斥者와 美英反動派및膨脹主義者」를 非難하는蘇聯提案을 熱烈히支持하였다

### 美蘇代表間激論

【파리二十日發UP=고려】軍縮問題를討議한 十九日UN總會에서 蘇聯代表「비신스키」氏는 西歐各國의 軍部가 蘇聯에對한原子力戰爭을 準備中이라고 指摘하는同時 西歐各國의狂的이고도 끊임없는軍擴競爭을하고있다고 非難하여 如左히 말하였다 西歐各國의反動軍部는原子彈을 그들의最後의希望으로看做하고있다 旣往에 蘇聯代表는 如此한狂的이고도 不斷한軍備擴張競爭이 美國및英國其他의美英陣營國家內에서 發生하고 있음을 指摘하는同時에또한此等國家內에서 戰爭病이漫延하여 不斷히 軍隊가動員되고있으며 戰爭과 蘇聯에對한 增惡心을挑發하기爲하여 輿論을調節하고있다 한편 軍縮問題를 繼續UN에서만 檢討케하는 西方國支持의決議案은 그가 原子彈問題를 無視하였기때문에 何等의效果도없는것이다

## 美中提携確認
### 트大統領近日中聲明

【워싱톤二十日發UP=고려】「워싱톤」一部官邊에서는「트루만」大統領이二十日「마ー샬」國務長官과 外交政策問題를檢討한後 美中兩國의 提携를再確認하고 中國危機에對한 美國政府의關心을 强調하는聲明을發表할것을 豫期하고있다 그러나大體로 그와같은聲明은 그內容이蔣介石氏에 對한 援助配當을 暗示하거나 또는中國에 對한美國의最終的言質을 回避하도록 愼重히作成될것이라고보고있다 한便側聞하는바에依하면 蔣介石總統은「트루만」大統領에게보낸書翰中에서 要請하였다 한다

## 佛外相會談
### 「마」長官 英

【파리廿日發AP合同】美「마ー샬」氏는「루ー루」地區問題等諸般問題의討議를하기爲하야十九日當地에서 英佛外相과 會談할豫定인바 이會談은「마ー샬」國務長官이「트루만」大統領과 相議할目的으로「파리」를出發하기前에行한豫定인會談中의하나인것이다 그리고「마ー샬」國務長官은 歸美後「트루만」大統領과「파레스타인」「루ー루」及中國問題를 包含한世界主要問題를檢討할것으로期待된다

## 超過援助不能
### 트氏蔣氏에答翰

【쌔프란씨스코廿日發AP合同】「뉴욕타임스」紙는 南京서온報道라하여 中國人側에 依하여 公表된「트루만」大統領과 蔣介石總統間의交換된 書翰의內容을揭揚하였는데 蔣介石總統이「트

## 맥司令部特使?
### 林炳稷氏不日歸國

【워싱톤二十日發UP고려】當地韓人協會는同會長으로活躍中이든林炳稷氏가 日間歸國으로 同國을出發할것이라고發表하는同時에「뉴욕」에있는「데이비드・Y南宮」氏가「워싱톤」駐劄大韓民國總領事에 任命되었으며 同氏는 오는二十二日當地에領事館을開設하고 UN이韓國承認을認定하고 大使의任命을 보게될때까지 總領執務할것이라고 言明하였다 南宮氏는過去三十五年來 美國에居留하고있는實業家이다

그런데一說에依하면 李大統領은 林炳稷氏를 大韓民國政府 外交高官에任命할意向을 하고있다고한다 即林氏는 東京맥아더司令部에對한 大統領特使로되지않으면 韓國政府에對한 UN承認이 있은後 駐華盛頓大使로 다시도라가리라고한다

## 人事往來

▲鮮于宗烈氏(大韓民族靑年團結成準備委員長)▼潘星煥氏(同涉外部長) 人事次來社
▲李載간氏(大韓赤十字社서울支社總事)十九日遭外艱

## 八面鋒

國會內에는 美軍駐屯을 要請하는 決議案이 通過되었다▲美軍은 果然駐屯해야만大韓民國은獨立할건가? 이것을 구태여께고 싶지아니하다▲그러면 美軍은果然大韓民國을 버리고 물러갈作定인가? 그래서 소매를 붙잡는 決議案인가 ▲허다면 美軍은 果然 大韓民國이 가라면 갈것이요、가지 말라면 아니갈것인가? 그보다도 그들의 必要로는 가야만 하겠지만 있어 달라면 할수없이 있을것인가?

週刊漫畫行進 微笑 2號發賣

登錄商標 금강잉크 KEUM KANG INK
最高品質 最低廉價
冬季用配給잉크 急速申請要望
建國工業博覽會上等賞受領
金剛化學工業研究所 謹製

紙物・文房具・印刷잉크
캘니포니아 잉크 全東洋總代理店
致生公司
香港德輔道中五十八號
韓國辦事處
서울市中區太平路一街六一 株式會社 天友社內

公告
美軍政으로부터 大韓民國政府에 政權移讓에依하야 政府機關인臨時管財局(前中央管財處)으로 移管하게됨에따라 各歸屬事業體의運營實態를明確하게하기爲하야 自四二八一年一月一日至四二八一年十月十二日現在로各歸屬事業體는管財書式二一〇號를精密히作成하야 各道管財處에今月三十日까지 各二通式提出함을務望함
檀紀四二八一年十月十三日
臨時管財局長
各歸屬事業體 貴下

男女 速記學生募集
募集人員(夜間部)若干名 修業年限 八個月
應募資格 中學卒業程度 願書마감 十一月二十五日限
國會速記士金天演氏(高麗速記學院長)指導
連絡處 서울市苑洞 自由新聞社總務局內 朴 洪